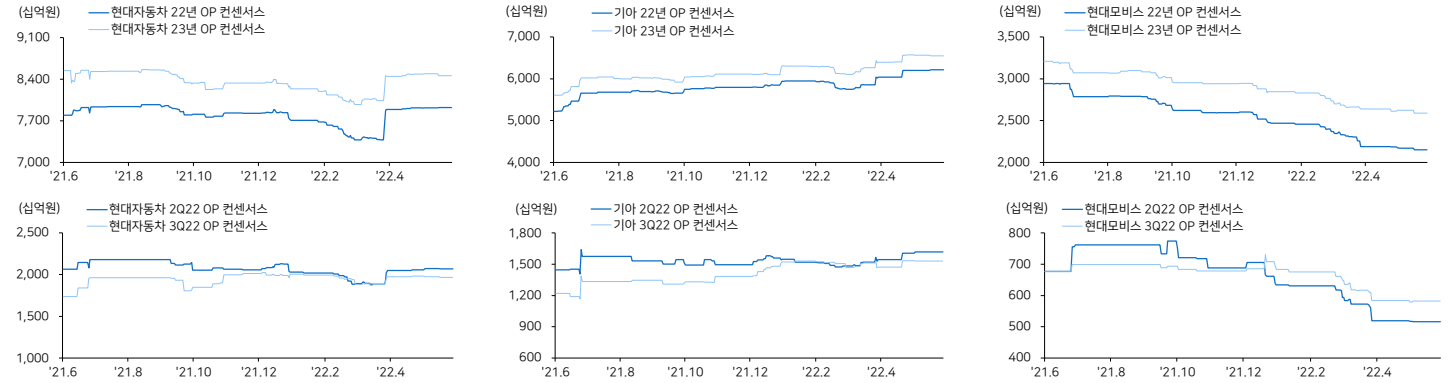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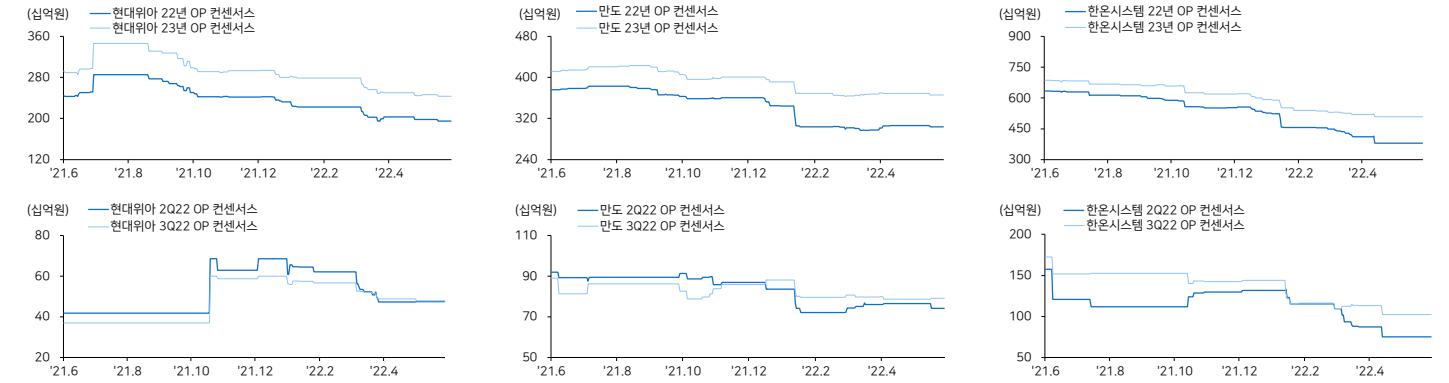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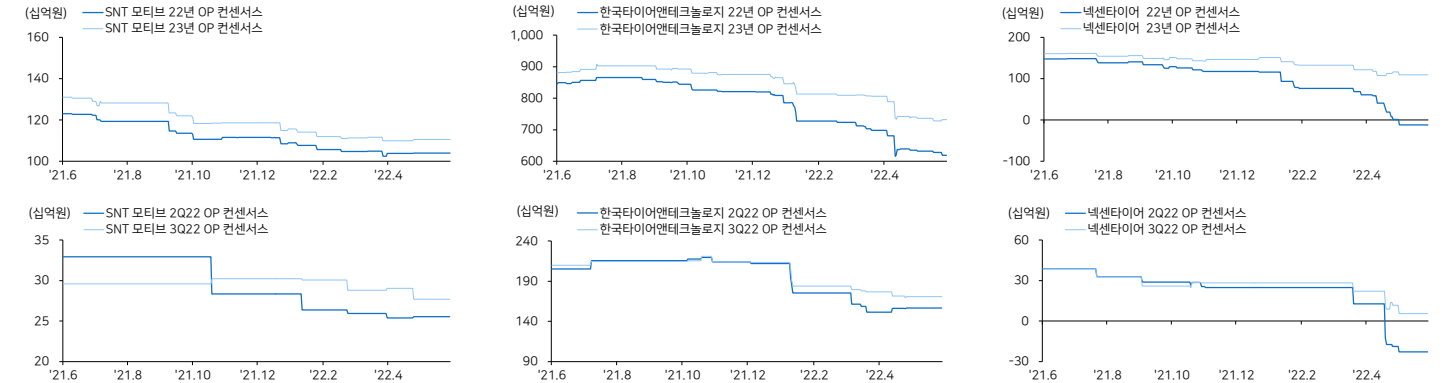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재훈 현대차 사장, 새 공장 신설에 "울산 공장이 중심...2조 규모 투자" (뉴시스)

현대차 정재훈 사장은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은 기존의 울산공장 부지에서 계획 중이며 투자 규모는 약 2조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언급. 또한 신모델인 아이오닉6는 올해 말 국내 출시, 내년 해외 출시를 계획 중이며 국내에서만 생산할 계획.
<https://bit.ly/3z8vtrM>

SK온 · 포드, 10조원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출범 (한국경제)

SK온과 포드의 북미 배터리 JV 블루오벌SK가 공식 출범. 두 회사는 각각 5조원씩 투입, 테네시주/켄터키주에 2개 공장을 건설. 2025년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129GWh에 달할 것이며 이는 포드의 배터리 물량 대부분을 SK온이 납품한다는 계획.
<https://bit.ly/3lB0qVV>

2024 Hyundai Ioniq 6 Offers Up To 379 Miles Of WLTP Range, 320 HP (Inside EVs)

현대차가 아이오닉6 세부 정보를 공개. Long Range 모델 기준 77.4kWh 배터리 옵션이 제공, EPA 주행거리는 아이오닉5 LR (487km)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컨트롤러의 SW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첫 모델이 될 것.
<https://bit.ly/3alioVB>

Chinese state paper article calls for more policies to spur NEV consumption (CNEV)

중국 국영 언론 Economic Daily는 중국이 NEV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지원하거나 더 많은 기업이 NEV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특히 Tier 1~2 도시의 NEV 교체 장려 및 할당량 상향, Tier 3~4 도시의 인프라 개선을 주장.
<https://bit.ly/3o5gB7a>

기아 새 전기차 EV9 내년 4월 출시...SK는 배터리 쓴다 (한국일보)

기아 EV9이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터리는 국내 제조사인 SK온 제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EV9는 전장 5,010mm으로 국내 SUV 중 가장 큰 크기로,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예상된다.
<https://bit.ly/3RABl3X>

美, 전기차 판매 비율 첫 5% 돌파...1년 사이 2배 증가 (글로벌비즈)

Cox Automotive는 6월 신차 판매가 2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EV 판매비율이 5.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66%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신차 중에서는 아이오닉5의 인기가 언급됨.
<https://bit.ly/3Up1aU9>

Elon Musk does the impossible and manages expectations on Tesla's next FSD update (electrek)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FSD Beta의 v11 업데이트가 8월 말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 모두를 위한 단기적 열정을 찾는 데 시간을 할 것이라고 언급. CEO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를 표함.
<https://bit.ly/3lCys4Y>

Tesla AI leader Andrej Karpathy announces he's leaving the company (CNBC)

Tesla의 AI 리더 Andrej Karpathy가 퇴사를 밝힘. 트위터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AI, 오픈소스 교육 등에 대한 장기적 열정을 찾는 데 시간을 할 것이라고 언급. CEO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를 표함.
<https://cnb.co/3z8lml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